**문제와 믿음/케네스 해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2305. 당신께서는 내 적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상(식탁)을 준비하시나이다.

당신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나이다,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5절의 말씀대로 적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적을 완전히 섬멸시킨 다음,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시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믿음에 상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전에 적을 두고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것을 나중에 받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상을 바라보지 않고,

적을, 문제를, 환경을 돌아서서 바라보는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문제에

관심을 끌려는 사탄을 그냥 무시하십시요.

상에는

빵도 있으며,

치유도 있으며,

건강도 있습니다

치유가 당신에게 속했는데

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냐고 묻습니까?

당신이 상에 있는 치유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빵 바구니에 있는 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안에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하십시요

 마귀는 아직도 우리 뒤에 있어,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역사할 수 없다고 계속 거짓말 합니다.

그는 우리 뒤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상위에는,

우리가 거듭난 후부터 영원으로 들어갈 때까지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Tags

회개 청종 믿음 의심 내주

문제 질병 치유